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1호 [루게 제25059호] 주제104 (2015)년 10월 8일 (목요일)

##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북변 라선땅에서 창조된 전화위복의 기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선경마을로 훌륭히 일떠선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을 돌아보시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  
시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승고한 인민사랑속에  
큰물피해를 완전히 가신  
라선땅에서 사회주의만세  
소리, 로동당만세 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  
건 일흔돐을 맞으며 사랑  
하는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기  
위하여 또다시 머나먼 하  
늘길, 령길, 배길을 달려  
기적의 선경마을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을 찾으  
시였다.

황병서동지, 김기남동  
지, 김양진동지, 오수용동  
지, 조용원동지, 김여정동  
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박영식동지, 강표영동지, 김용진동지를  
비롯한 라선시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지휘관들과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지난 9월 조국의 최북단 라선시큰물  
피해복구전투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당을 따라 전  
체 군대와 인민이 사선의 고비도, 험난  
한 진펄길도 함께 헤쳐온것처럼 군대와  
인민이 힘을 합쳐 라선시피해복구전투

에서도 세상에 없는 군민대단결의 위력  
을 다시금 과시하자고 하시면서 피해복  
구전투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심장마다 새겨안고 한사람같이 떨쳐  
나선 군대와 인민의 힘찬 투쟁에 의하  
여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라선시 선  
봉지구 백학동지역에 1,300여세대의  
단층살림집들이 준비하게 일떠서고 청

계동, 유현동, 판곡동지구 등 여러곳에  
500여세대의 소층, 단층살림집들이 주  
변풍치와 어울리게 새로 건설되었다.

라선시피해복구전투가 승리적으로 결  
속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TV와 의복류, 경질유리그릇, 식료품은  
물론 성냥과 위생종이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생활필수품을 보내주시였으며 오늘  
은 새집들이를 앞둔 백학동을 찾으시어

인민사랑의 뜨거운 자욕을 새기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휘관들  
과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라선시피해복구를  
끝낼데 대한 명령을 관철하느라 수고들  
이 많았다고, 자신께서 새로 건설한 살  
림집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오늘 어  
기로 오는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가 백학동에 새로 일떠세운  
마을이 불수록 멋있다고 하시면서 살림집  
지붕과 외장재색깔도 보기 좋고 주택구역  
의 도로와 울벽, 배수로공사도 잘했다고,  
터밭도 조성해주고 매통까지 마련해놓았  
는데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되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북변 라선 땅에서 창조된 전화위복의 기적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회주의선경마을로 훌륭히 일떠선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을 돌아보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고향집, 고향마을을 꾸리는 심정으로 큰물피해복구전투를 정말 잘했다고, 이번 전투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인민군대의 사상정신적, 도덕적풍모를 더욱 힘있게 과시하는 과정으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제 남은것은 새집들이라고, 군인들이 인민들의 새집들이를 도와주는것을 비롯하여 마무리를 잘하고 귀대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복의 그림처럼 펼쳐진 백학동 살림집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황홀하다고, 기쁜 일이면 이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으며 보람이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인민들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과 3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선경마을이 생겨났다고 못내 기뻐하시

면서 이는 당에 대한 총정의 마음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지닌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적이라고, 자신께서는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당정책관철의 척후대인 인민군대의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긍지로 자부심을 한껏 느끼게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라선시 피해복구전투는 전례없이 방대하고 아름다운 전투였지만 자신께서는 인민

군대를 굳게 믿었다고 하시면서 이 땅우에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 인민군대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력사의 한페이지를 또 한번 자랑스럽게 썼다고, 우리 당 투쟁력사는 군대와 인민의 애국총정의 피와 땀으로 찍여지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집을 잃고 한지에 나왔었던 피해지역 인민들에

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보니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고,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새 집들을 받아안게 될 인민들은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하시면서 당의 명령을 결사관철함으로써 당에 대한 인민들의 소중한 믿음을 지켜주고 당의 권위를 보위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건설에 참가한 전체 부대들에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3 면 으 로 계속



#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북변 라선땅에서 창조된 전화위복의 기적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회주의선경마을로 훌륭히 일떠선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을 돌아보시였다



### 2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의 북변땅에서 이룩된 성과는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위대한 승리이라고 하시면서 군민대단결보다 강한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이런 힘이 있었기에 자연의 혹독한 전횡도 물리칠수 있었고 전대미문의 피해도 단숨에 가실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라선전역에서 발휘한 인민군군인들의 위훈을 생각하면 가슴이 후터위치고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기념사진을 찍고 가야지 그대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수만명의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까지 무려 1시간 30분동안이나 기다려주시였다.

그리하여 라선땅에서는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어깨성을 쌓은 군인들이 자기를

이 건설한 살림집들을 배경으로 기쁨에 울고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는 세상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숭고한 화폭이 펼쳐졌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군인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며 물목이 터진듯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타신 버스를 따라섰고 그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전체 군민건설자들과 라선시의 인민

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전화위복의 기적으로 수재민들에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마련해주시고 온정어린 선물들을 가슴가득 보내주시어 온 나라 인민들과 함께 당창건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하도록 해주시고도 마음을 못 놓으시어 또다시 머나먼 북변땅에까지 찾아오시여 거듭 뜨거운 정을 쏟아부어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흥모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백옥같은 총정과 의리로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이 세상 끝까지 받들어나갈 굳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을 다 바치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라선땅에 아로새기신 인민사랑의 자욱은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세세년년 길이 전하여질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해 주 시 에 높 이 모 시 었 다

은 나라 천만군민이  
풀없는 환희에 넘쳐 당  
상진 70돐을 우리 조  
국역사에 길이 빛날 혁  
명적대경사로 맞이하  
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위 대 한 수 령  
김 일 성 동 지 와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의 동상을  
해 주 시 에 높 이 모 시  
었다.

위 대 한 수 령  
김 일 성 동 지와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의  
동상제막식이 7일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제막식은 성스러운  
혁명병도의 나날 황  
남당을 끊임없이 찾고  
찾으시며 도를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경제발  
전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정력적인  
헌신의 자욱을 새겨  
가신 위대한 수령님들  
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  
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  
번지고있었다.

위 대 한 수 령  
김 일 성 동 지의 태양상  
과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의 태양상  
이 제막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제막식장에 세워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  
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  
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혼을 철저히 관찰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  
까지 완수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제막식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  
자!》라는 구호들과 《결사옹위》, 《일심단  
결》이라는 글발을 드러내 대항기둥들이 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양옆에는 조선인  
민군 복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  
위공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으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다.

김정일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로  
두철동지와 노광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박영호 황해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최정  
봉 황해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 로력혁신자들, 목격대원들, 조선인  
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도내근로자  
들, 청년학생들이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제막식은 시작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을 당과  
국가, 군대, 황해남도의 책임인물들이 하  
였다.

순간 주체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  
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천원히 빛을  
뿌리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끓어넘치는 다함없는 흥모와  
충정심의 분출인양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을 진감하고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제막식장상공을 환희롭게 장식  
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황해남도인민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이어 황해남도 당, 정전기관, 근로단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대학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등의 명  
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대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띄어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가 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해 주 시 에 높 이 모 신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생애와 불멸  
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는데서 커  
다란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사변이며 뜻깊  
은 10월에 황해남도인민들이 받아안은 크  
나큰 영광이고 행복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태양의 영상을 경건한 마음  
으로 우러르는 우리 모두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고 말하  
였다.  
비범한 사상려론과 거창한 혁명실력으로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강성민명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완  
성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와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자욱은 황남  
평의 이르는 곳마다에 력력히 아래서겨져  
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된 이  
들해진 주체35(1946)년 1월 해 주 시 에 대  
한 역사적인 첫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황해남도  
의 수많은 단원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정  
치, 경제, 문화 등 도안의 전반사업을 혁명  
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재령벌  
의 애국농민을 친히 만나주시고 농민들의  
생활환경과 농사일을 의논해주시던 그날로  
부터 도를 찾으신 때마다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속에 계시면서 나라의 주인, 땅의 주  
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전쟁의 상처로 하여 가슴아픈 사연을 안고  
있는 사람들도 친애비비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 당원으로, 대의원으로 내세워주시었  
다고 말하였다.  
황해남도의 농업생산에 언제나 커다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장  
원들에게 논물관리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  
쳐주시고 자신께서 직접 시험해보신 농사  
방법들까지 배워주시었을뿐 아니라 물에 대  
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까지 다 풀어  
주시어 도의 알곡생산에서 획기적인 전변  
이 일어나도록 하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  
였다.  
그는 쌀을 많이 내는 황해남도인민들에  
게 남먼저 문화주택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안락군 오곡리를 인민의 리상촌  
으로 건설해주시고 도안의 모든 농촌리들  
에 문화주택을 짓도록 하시어 가와집에서  
살고있어하던 우리 농민들의 정성소원을  
풀어주시어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덕을 영연  
히 잊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령판산, 은평판산을  
여러차례 찾으시어 나라의 믿음직한 철광  
석생산기지로 꾸려주시었으며 도안의 교

육, 문화,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인민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 각급 학교들  
과 병원, 진료소, 극장, 문화회관들을 일떠  
세우도록 하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이 땅우에 활  
짝 꽃피우시기 위하여 혁명생애의 전기간  
수십차례 걸쳐 황해남도안의 수백개 단원  
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도의 전반사업을  
정면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분계연산지대의 특성에 맞게 도안  
의 모든 당조직들이 신원평의 피의 교훈을  
사람들속에 깊이 새겨주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사  
상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언제나 깊은 판  
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황해남도인민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필승의 신념, 투  
철한 계급의식을 지닌 사회주의호전적 전  
초병들로 자라났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로동계급이 자  
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은평판산 대형장거  
리베르네아공사를 훌륭히 완공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여러차례나 재령판산을 찾으  
시어 굴지의 쇄물생산기지로 전면시켜주시  
것을 비롯하여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도안의 기간  
공업부문의 생산적토대를 튼튼히 다져주시  
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황해남도토지정  
리사업을 친히 맡기하시고 전두에서 혁명  
하게 령도하시어 취약별과 연안별, 어사별  
과 어러리별, 내동별과 거문제별을 비롯하  
여 도안의 10만여정보의 토지를 사회주의  
당답게 훌륭히 변모시키시었으며 신원군  
제남지구에 대규모축산기지를 일떠세우도  
록 하시어 축산업발전의 튼튼한 토대로 마

련해주시었다고 말하였다.  
황해남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문제를  
위하여 그처럼 마음쓰시며 필요한 자금과  
자재를 최우선 보장하도록 하여주시  
신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크나  
큰 은덕에 의하여 1,500정보의 품매도간  
석지건설이 완공되고 황남청년제염소, 신  
원세련트공장건설과 해주강철공장현대화공  
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그는 언  
급하였다.  
그는 구월산, 장수산을 인민들이 즐겨 찾  
는 행복의 유원지로 꾸려주시고 은천군의  
이름없는 한 농촌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념  
려하시어 100여세대의 마을을 통째로 살  
기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었으며 인민들에  
게 질 좋은 기초식품을 떨구지 말고 공급하  
도록 마음쓰시며 친히 장맛까지 보아주시  
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진철같은 이  
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  
주고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황남평에 높이  
모시고 절세위인들의 영원한 축복속에 천  
만년 살고싶은 황해남도 전체 인민들의 한  
결같은 열망과 절절한 념원을 헤아리시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맞으  
며 해 주 시 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모시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황해남도안의 전체 인민들과 온 나  
라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  
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상  
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었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주체혁명위업, 신  
군혁명위업을 당의 령도  
따라 최후승리로 힘  
있게 전진시켜야 할 중  
대한 과업이 나서고있  
다고 그는 말하였다.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었다.  
《우 리 는 위 대 한  
수 령 님 과 장 군 님 께 서  
언 제 나 우 리 와 함 께  
계 시 면 서 고 부 해 주 신  
다 는 것 을 명 심 하 고  
더 욱 분 발 하 여  
수 령 님 과 장 군 님 의  
구 상 과 념 원 을 빛 나  
게 실 현 해 나 감 으 로 서  
주 체 혁 명 의 새 로 운  
100년 대 를 승 리 와  
영 광 의 년 대 로 빛 내  
여 야 합 니 다.》  
연 설 자 는 모 두 다  
위 대 한 김 일 성 동 지와  
위 대 한 김 정 일 동 지는  
영 원 히 우 리 와 함 께  
계 시 다 는 철 석 같 은 신  
념 을 간 직 하 고 위 대 한  
수 령 님 들 의 유 혼 을 무  
어 지 무 까 지 관찰 하 여  
이 땅 우 에 수 령 님 들 의  
혁 명 력 사 가 즐 기 차 게  
흐 르 도 록 하 여 야 한 다  
고 말 하 였 다.  
그 는 선 군 조 선 의  
운 명 이 시 고 미 래 이 신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의 령 도 를 충 직 하 게  
받 들 어 나 가 는 여 기 에  
위 대 한 수 령 님 들 의  
사 상 과 업績 을 끝 없 이  
빛 내 어 나 가 는 결 정  
적 담 보 가 있 다 고 강 조 하  
였다.  
도 안 의 당 조 직 들 에 서  
당 의 의 도 대 로  
위 대 성 교 양, 김 정 일 동  
지께 국 주 의 교 양, 신 념 교  
양, 반 계 계 급 교 양, 도 덕  
교 양 에 힘 을 넣 어  
수 령 님 들 의 유 혼 을 철  
저 히 관찰 하 여 당 이  
제 시 한 알 곡 과 축 산 물,  
과 일 을 비 롯 한 농 업  
생 산 목 표 를 기 어 이 정  
면 하 여 야 하 는 것 이 라고  
말 하 였 다.  
도 안 의 전 반 적 경 제 를  
활 성 화 하 고 육 아 된  
과 육 원, 학생 소년 공 전  
을 비 롯 한 중 요 대  
상 건 설 의 완 공 을 앞 당  
기 며 당 의 은 정 속 에  
마련 된 인 민 생 활 기 지  
들이 은 은 내 도 록 함  
으로써 로 동 당 민 세 소 리,  
사 회 주의 만 세 소 리 가  
높 이 울 려 퍼 지 게 할 데  
대 하여 그는 언 급 하 였  
다.  
연 설 자 는 모 두 다 위  
대 한 김 일 성 동 지와  
위 대 한 김 정 일 동 지를  
주 체 의 태양 으 로,  
영 원 한 수 령 으 로 높 이  
모 시 고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를 수 반 으  
로 하 는 당 중앙 위 원 회  
의 두 리 에 굳 게 동 체  
사 회 주의 강 성 국 가 건  
설 과 주 체 혁 명 위 업 의  
최 후 승 리 를 위 하 여  
힘 차 게 싸 워 나 감 데  
대 하여 강 조 하 였 다.  
제 막 식 은 《수 령 님 과  
장 군 님 은 함 께 계 시  
네》 노래 주 악 으 로 끝  
났다.  
참 가 자 들 은 위 대 한  
수 령 김 일 성 동 지와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의 동 상 에 대  
한 해 설 을 들 고 절 세 위  
인 들 의 동 상 을 들 아 보  
았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축하하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당의 영도자라 백두에서 계획된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편진레승을 이룩해나가는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흔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은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열화같은 호모의 마음을 담아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조선로동당의 역사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오신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우리 당을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항도자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인민주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주도하는 권위 있는 혁명적당으로 존엄떨치게 하신 회색의 정기가, 20세기의 걸출한 수령이십니다.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혁명적당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4(1945)년 10월 10일 우리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은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으며 영광스러운 로동당시대를 열어놓은 거대한 정치적사건이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은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힘있게 추동하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관계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게 한 위대한 무기로, 조선로동당이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모범을 창조하고 비상히 높은 권위와 존엄을 떨칠수 있게 한 고귀한 지침으로 되었습니다.

한세기전까지만 하여도 식민지약속국으로 세계무대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횡포한 제국주의강적을 때려부신 영웅조선으로, 천리마의 나라로 만민의 칭송을 받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추구치오르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우리 당만이 이룩할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같이 10대에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주시고 30대에 새혁명의 당을 창건하는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50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당을 이끄시면서 위대한 승리의 년대기를 아로새겨온 정치가를 역사는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실천으로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고 로속하고 세련된 명도로 혁명의 참모부를 이끌어 현대조선의 역사를 가장 빛나는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조국정사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사에 영원불멸할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어 강성국가건설의 만년토대를 쌓아올리신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우리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역사적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전당을 김일성주의화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하도록 하신 김정일동지의 명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 확고히 선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조직성과 규율성이 강한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의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숭고한 도덕리, 정력적인 명도로 동서고급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수령영생위업의 새로운 경륜을 펼쳐시어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혁명승리가 이 땅우에 꽃피어 흐르게 하고 수령의 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성격을 굳건히 고수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계승하여 군명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며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어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정치로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제하시고 당과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신것은 우리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특출한 업적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따라 우리 당은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대오를 정제화하고 혁명적군정선에 기초한 군민단결의 위력을 높이 발양해나감으로써 조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였습니다.

이 땅에 생을 준 천민사람들을 믿음과 사랑의 한눈에 안아 키우주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덕정치, 광복정치는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혁명적대중의 이름다운 화폭을 펼쳐놓고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은 장군님의 애국열과 불굴의 헌신은 우리 나라를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위용되게 하였으며 우리의 과학기술이 최첨단을 돌파하고 나라의 곳곳에 사회주의선경들이 펼쳐지는 환한 현실을 안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제위가 어린 이 나라의 산과 들, 일터와 마을들에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가슴지시며 장군님과 맺은 정을 되풀이하며 당을 따라 일면단결 충성을 다해가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하늘처럼 믿고 따르며 어머니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축복받은 삶, 인생의 값높은 영광을 노래하여온 우리 인민의 절절한 사상감정은 하늘명이 열번 바뀔때도 변함이 없을것입니다.

영광스러운 70년로동당의 70년력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우리의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수령이 위대하여 당이 위대하고 조국도 강성하며 인민도 최상의 존엄과 행복을 누린다는 절대적진리를 다시금 심장깊이 새겨안고있습니다.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혁명의 길을 열고 인민의 정선력을 총괄받시어 인민의 나라를 강성민병으로 항도하는 우리 당, 혁명적당건설의 세계적본보기로 창조한 조선로동당의 역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존함과 더불어 천만년 길이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어 세기와 세대를 이어 백승의 역사를 수놓아온 우리 당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은동지를 모시어 강철의 권위대대로 더욱 강화되고 조선혁명의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위력을 백방으로 떨치고있으며 백두산대국의 무궁상창한 태양을 힘차게 앞당겨오고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눈부신 번영과 기적으로 빛내어나가는 진군길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더없는 행운인가 하는것을 실지 체험으로 가슴뜨겁게 느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총직하게 받들어 조선로동당을 주체혁명의 강위력한 항도적정치조직으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영도자이십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숭고한 도덕리로서 우리 인민들과 세계의 진보적인류들을 끌어안아 감동시키시며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쳐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생전의 모습 그대로 모신 금수산태양궁전을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수령영생의 대기념비,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려주시고

만수내덕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국각지에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충정에 받들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사랑하시던 인민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는 가슴뜨거운 화폭이 이 땅우에 펼쳐졌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들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실때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것을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한것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력사와 시대, 인민앞에 선언한 중대한 사변이었으며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승리적진전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담보를 마련한 의의깊은 계기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실현하는것을 생명선으로 묶어주고 빛나게 관철해나가도록 하신 김정은동지의 명도에 의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삶과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그대로 닮고 수령님들의 넋님과 리상을 꽃피우기 위해 헌신분투하는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의 총정과 위훈의 날과 달들로 수놓아지고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건설과 당활동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과 항도적력량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철한 혁명적원칙성과 세련된 조직적수완에 의하여 당과 혁명대오의 순결성이 확고히 고수되고 당의 유일적명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강도높이 벌어지게 되었으며 단결의 유일중심, 명도의 유일중심이 확고하고 강철같은 규율과 앞날같은 기강이 선 강력한 조직적진일체로서의 우리 당의 위력은 비상히 강화되었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년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마다 쏘아박고 불굴의 정선력으로 신약같이 떨쳐나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해나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당의 사상제일주의가 발휘하는 거대한 변혁적 위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습니다.

사해전역 최남단의 섬초소로부터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을 종횡무진하시며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달아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는 총돌격전으로 불리우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는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전구들을 지켜낸 당조직들을 무한한 혁명열, 투쟁열로 들끓게 하고 일군들을 사람과의 사업의 능수, 아전형의 지휘성원들로 키워내는 숭고한 귀감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를 불변의 신조로 삼고 수령님들의 교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관철하시며 누구도 따를수 없는 특출한 자질과 로속하고 세련된 명도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이끌어나가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날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면위전의 리념과 인민사랑의 정치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이어나가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며 사랑하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것을 숭고한 인민관으로 내세우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며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서의 혁명적 본래를 굳건히 고수해나가도록 우리 당을 이끌고계십니다.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전당에 인민에 대한 믿음과 열렬한 사랑의 정신,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는 헌신적기풍이 차넘치게 하려는 높은 뜻과 굳은 의지가 깃들여있고 인민에게 치매되는 모든것은 세상에 내놓고 자발할만 한 완전무결한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재부들을 마련하는 창조적 기준으로 되고있습니다.

만사람을 한눈에 안아 키우주고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들을 풀어주는 어머니당의 목소리가 심심산골 벼촌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울리고있는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뜻으로 뭉쳐지고 혈연의 정으로 맺어진 명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는 더욱 굳건해지고 있으며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여세에 이어나가는 인민의 마음속에는 마차와 낫, 붓이 아로새겨진 붉은 당기가 정답고 눈부신 자태로 소중히 간직되어있습니다.

병사들과 인민을 찾아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 천만가지 복을 다 안겨주시는 김정은동지의 불굴적주야 강행군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꽃피어 울리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현된 사회주의선경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는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천이비사방과 뜨거운 정을 그대로 이어주시고 인민을 위함이라면 심장을 다 바치시는 그 인품, 그 열정에 한없이 마음이 끌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원수님이라 부르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있으며 인민의 이런 일면단결을 돌려세울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세기를 주름잡는 기적과 세계를 앞서나가는 눈부신 비약으로 강성민병의 로동당시대를 만대해 빛내여가시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십니다.

최근 몇몇년사이 이 땅에서는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최상의 높이에서 떨치는 자랑찬 승리와 10년을 1년으로 앞당겨 천지개혁을 일으키는 경이적인 전환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세인을 놀래운 이 모든 자랑스러운 성과들은 비범한 선견지명과 평화무쌍한 전략전술, 완강한 경제산성공격전과 탁월한 명도력으로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에 이르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최후의 승리를 향한 총진군을 확신성있게 이끌어 나가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마련된것입니다.

일일단결과 함께 불패의 군력을 조국사수, 혁명보위의 성스러운 보검으로 확고히 들어우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투쟁을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환벽한 실천능력을 소유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비상히 강화발전시키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어 미제를 괴수으로 하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준동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짓부시고 편전승을 안아오시였으며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앞장에 내세워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도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당의 영도자라 백두에서 계획된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편진레승을 이룩해나가는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흔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 성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역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 길이 전한다

## 영광 빛 나라, 위대한 우리 당이여

인민의 크나큰 환희를 받고 푸른 10월의 하늘에 우리의 당기발이 펼쳐 휘날린다.

은 누리를 붉게 물들이며 힘차게 나뭇기는 조선로동당기발을 우리르느니 천만군민의 마음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로 끌려나갈다.

오늘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8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은 우리 인민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혁명실천으로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항도적방향을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업적을 경건히 높이켜보며 그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삼가 드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수령의 당,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려는 것은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

정령 그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는 결정적담보를 마련한 혁사적사건이다.

돌이켜보면 장장 수십성상에 달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조선로동당 령도사는 걸출한 령도자이신 그의 특출한 위인성과 업적이 만천하에 펼쳐진 나날이었다.

어느덧 5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역사와 인민의 열렬한 념원에 떠받들리시여 당중앙위원회에 령도의 자옥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밤을 지새우시고 다음날 새벽녘에 나서시었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장군님이 휘날리는 당기발을 이두르며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의 역사는 붉은 기발과 함께 걸어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빛나는 역사이라고, 우리 당기발에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역사가 그대로 비껴 있다고 하시었다.

역사의 그 새벽녘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저 붉은 기발을 높이 휘날려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당은 어제와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영광스러운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어야 한다는 심원한 뜻을 엄숙히 천명하시었다.

우리 당을 영원히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역사의 그 의지를 안으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당을 영원한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어 온 사회의 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어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 하신것이아말로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중의 업적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사상리론적 업적과 특출한 업적을 두고 자신께서 우리 인민의 토양에서 씨를 뿌리고 키워온 주체사상을 김정일동지가 무성한 숲으로 가꾸어 풍만한 열매를 거둘수 있게 하였고 정철을 맺어주시고 하시어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는 오늘날 만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자신의 혁명사상을 사상, 리론, 방법의 3대구성체로 정립한것으로 만민이 매 구성체를 분리적으로 전개한것도 만민이 알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역사에 길이 빛날 기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시대의 칭송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명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어 나감수 있게 하신것은 우리 당의 위업

실현에서 실로 크나큰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강령으로 내세우시고 불변불휴의 령도와 헌신으로 수령님의 념대로 이 땅에 부강번영의 새 역사를 펼치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당과 군대, 인민의 혼연일체를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함으로써 그 어떤 천지공파속에서도 우리 시의 수령의 위업을 떠메고나갈 필승불패의 혁명력량을 꾸려놓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업적이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밑에 강력한 총대에 의거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존권을 수호하고 주체의 내 나라, 사회주의 내 조국을 불멸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이신 업적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수 없다.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다!

선군은 우리의 생명이고 자주이며 존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엄혹한 시련이 닥쳐들었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더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아래로 우리 당의 위업을 승려로 돌린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것은 선군의 기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위업으로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시며 우리 당과 혁명, 주체의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백승을 펼치신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실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으신 업적 그토록 크나큰것이기때문에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이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국가

의 최고수위에 하루빨리 모시고 새로운 역사적전진길을 다그치려는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고 한결같은 의지였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는 오로지 우리 당을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데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었다.

우리는 추대사업을 놓고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완성해갈것인가 하데 대하여서만 머리를 써야 한다고, 우리는 오직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혁명의 한길로만 변함없이 걸어 나가야 하며 수령님의 위업을 수행해나갈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수령명생위업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한몸바치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은 태양의 존엄과 더불어 영원히 빛나는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성스러운 역사를 새겨가게 되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의 붉은기울 더 높이 추켜들고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처럼 비범한 령도에서 천만군민은 모든 승리의 영광을 보았고 당의 령도적 지휘를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가의 배를 탄다.

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김정일동지의 권위는 곧 우리 당의 권위이며 우리 나라의 권위라고, 김정일동지의 권위가 높아지면 우리 당의 권위가 높아지고 우리 나라의 권위가 높아지게 된다고... 진정한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하고 걸출한 수령의 령도가 있어야 하고 조국, 인민의 운명이 걸려있고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어 나감수 있게 하신것은 우리 당의 위업

전환을 이룩할수 있으며 민족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수 있다는것을 다스림 심정에 새기었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또 한분의 걸출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혁명의 붉은기울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어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는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역사적인 회의가 되도록 이끄시었다.

대표자회가 끝난 후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우리 당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장군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직함으로서 오직 장군님께서는 결부하여 부름수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는 영원히 우리 장군님이시라고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장관 70회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력사적인 로와 《위대한 김정일,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엄숙히 선언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 밑에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어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온 영광스러운 김정일, 김정일동지 당이다!

탁월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영생하시어 오늘도 우리 당의 위업,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기둥으로 믿고 추앙해나갈 위대한 장군님이시라고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 그 어떤 천지공파가 닥쳐와도 오직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추앙해나갈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당과 혁명, 인민앞에 인민군대가 지닌 무조건적 영예로운 사명감을 길이 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우리가 가는 앞길에 그 어떤 천지공파가 닥쳐와도 오직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추앙해나갈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확고한 선군의지가 깎 차립시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18돐을 맞이한 환희의 이 시각 우리 인민군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두고 인민들은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젖는다.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로, 우리 혁명의 가장 믿음직한 기둥으로 강화발전시키시는 길에서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이 생동한 화폭으로 어리어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는 군사를 앞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독특한 사회주의방식이다.》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는 군사를 앞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독특한 혁명령도방식이다.》

혁명투쟁은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통한다는것만큼 강한 혁명투쟁에 의거하여야만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승리한 혁명을 지켜낼수 있다.

주제 90(2001)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우리 당이 펼친 선군령도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령도에서 기본은 인민군대를 강화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강하면 설사 당이 무너진다고 하여도 당의 위업을 끝까지 지켜나갈수 있는것을 믿고, 당도 유지할수 없으며 나라가 망할수도, 어떤 의미에서 군대이자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당과 혁명, 인민앞에 인민군대가 지닌 무조건적 영예로운 사명감을 길이 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우리가 가는 앞길에 그 어떤 천지공파가 닥쳐와도 오직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추앙해나갈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확고한 선군의지가 깎 차립시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나가기엔 잊을수 없는 나날들에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감과 임무를 다해나가기로 결심결을 이끌어주시었다.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대를 기둥으로,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가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 독립적인 사회주의방식이다.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역선기둥으로 키워주시며 끊임없는 전진하는 사명감을 길에 이어나가시던 우리 장군님의 모습이 숭엄히 어려온다.

찾으시는 초소들마다에서 우리 병사들을 나의 아들딸, 한결근에서 싸우는 선군혁명투쟁이라고 불러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어떤 자랑을 지어낼수 있다.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무척의 총대로 보위해가는 백두산혁명군대가 자랑이다.

어제 이뿐이라, 인민군인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투쟁의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받들어나가는 가장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 달려나가 전적의 돌과피를 열어제끼며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펼치시었다.

우리 당의 위업을 끝까지 담보하는 혁명의 지지점이 되려는것은 백두산혁명군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당을 떠남없는 가장 믿음직한 자라나 우리 인민군대의 참모습이 있으며 선군을 보임으로 역세게 푸어낸 우리 조국이 백승을 펼치는 근본비결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길에하는 원수님께서게서 우리 인민군대를 영원히 당의 위업을 앞장서서 받들어나가는 가장 믿음직한 기둥으로 그 존엄과 위업을 떨쳐잡았다.

본사기자 림정호

### 가장 믿음직한 기둥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사상리론적 업적과 특출한 업적을 두고 자신께서 우리 인민의 토양에서 씨를 뿌리고 키워온 주체사상을 김정일동지가 무성한 숲으로 가꾸어 풍만한 열매를 거둘수 있게 하였고 정철을 맺어주시고 하시어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는 오늘날 만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자신의 혁명사상을 사상, 리론, 방법의 3대구성체로 정립한것으로 만민이 매 구성체를 분리적으로 전개한것도 만민이 알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역사에 길이 빛날 기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시대의 칭송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명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어 나감수 있게 하신것은 우리 당의 위업

실현에서 실로 크나큰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강령으로 내세우시고 불변불휴의 령도와 헌신으로 수령님의 념대로 이 땅에 부강번영의 새 역사를 펼치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당과 군대, 인민의 혼연일체를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함으로써 그 어떤 천지공파속에서도 우리 시의 수령의 위업을 떠메고나갈 필승불패의 혁명력량을 꾸려놓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업적이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밑에 강력한 총대에 의거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존권을 수호하고 주체의 내 나라, 사회주의 내 조국을 불멸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이신 업적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수 없다.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다!

선군은 우리의 생명이고 자주이며 존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엄혹한 시련이 닥쳐들었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더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아래로 우리 당의 위업을 승려로 돌린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것은 선군의 기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위업으로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시며 우리 당과 혁명, 주체의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백승을 펼치신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실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으신 업적 그토록 크나큰것이기때문에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이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국가

의 최고수위에 하루빨리 모시고 새로운 역사적전진길을 다그치려는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고 한결같은 의지였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는 오로지 우리 당을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데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었다.

우리는 추대사업을 놓고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완성해갈것인가 하데 대하여서만 머리를 써야 한다고, 우리는 오직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혁명의 한길로만 변함없이 걸어 나가야 하며 수령님의 위업을 수행해나갈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수령명생위업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한몸바치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은 태양의 존엄과 더불어 영원히 빛나는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성스러운 역사를 새겨가게 되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의 붉은기울 더 높이 추켜들고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처럼 비범한 령도에서 천만군민은 모든 승리의 영광을 보았고 당의 령도적 지휘를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가의 배를 탄다.

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김정일동지의 권위는 곧 우리 당의 권위이며 우리 나라의 권위라고, 김정일동지의 권위가 높아지면 우리 당의 권위가 높아지고 우리 나라의 권위가 높아지게 된다고... 진정한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하고 걸출한 수령의 령도가 있어야 하고 조국, 인민의 운명이 걸려있고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어 나감수 있게 하신것은 우리 당의 위업

전환을 이룩할수 있으며 민족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수 있다는것을 다스림 심정에 새기었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또 한분의 걸출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혁명의 붉은기울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어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는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역사적인 회의가 되도록 이끄시었다.

대표자회가 끝난 후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우리 당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장군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직함으로서 오직 장군님께서는 결부하여 부름수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는 영원히 우리 장군님이시라고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장관 70회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력사적인 로와 《위대한 김정일,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엄숙히 선언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 밑에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어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온 영광스러운 김정일, 김정일동지 당이다!

탁월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영생하시어 오늘도 우리 당의 위업,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기둥으로 믿고 추앙해나갈 위대한 장군님이시라고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 그 어떤 천지공파가 닥쳐와도 오직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추앙해나갈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확고한 선군의지가 깎 차립시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18돐을 맞이한 환희의 이 시각 우리 인민군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두고 인민들은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젖는다.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로, 우리 혁명의 가장 믿음직한 기둥으로 강화발전시키시는 길에서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이 생동한 화폭으로 어리어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는 군사를 앞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독특한 사회주의방식이다.》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는 군사를 앞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독특한 혁명령도방식이다.》

혁명투쟁은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통한다는것만큼 강한 혁명투쟁에 의거하여야만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승리한 혁명을 지켜낼수 있다.

주제 90(2001)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우리 당이 펼친 선군령도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령도에서 기본은 인민군대를 강화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강하면 설사 당이 무너진다고 하여도 당의 위업을 끝까지 지켜나갈수 있는것을 믿고, 당도 유지할수 없으며 나라가 망할수도, 어떤 의미에서 군대이자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당과 혁명, 인민앞에 인민군대가 지닌 무조건적 영예로운 사명감을 길이 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우리가 가는 앞길에 그 어떤 천지공파가 닥쳐와도 오직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추앙해나갈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확고한 선군의지가 깎 차립시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나가기엔 잊을수 없는 나날들에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감과 임무를 다해나가기로 결심결을 이끌어주시었다.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대를 기둥으로,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가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 독립적인 사회주의방식이다.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역선기둥으로 키워주시며 끊임없는 전진하는 사명감을 길에 이어나가시던 우리 장군님의 모습이 숭엄히 어려온다.

찾으시는 초소들마다에서 우리 병사들을 나의 아들딸, 한결근에서 싸우는 선군혁명투쟁이라고 불러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어떤 자랑을 지어낼수 있다.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무척의 총대로 보위해가는 백두산혁명군대가 자랑이다.

어제 이뿐이라, 인민군인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투쟁의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받들어나가는 가장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 달려나가 전적의 돌과피를 열어제끼며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펼치시었다.

우리 당의 위업을 끝까지 담보하는 혁명의 지지점이 되려는것은 백두산혁명군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당을 떠남없는 가장 믿음직한 자라나 우리 인민군대의 참모습이 있으며 선군을 보임으로 역세게 푸어낸 우리 조국이 백승을 펼치는 근본비결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길에하는 원수님께서게서 우리 인민군대를 영원히 당의 위업을 앞장서서 받들어나가는 가장 믿음직한 기둥으로 그 존엄과 위업을 떨쳐잡았다.

본사기자 림정호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18돐을 맞이한 환희의 이 시각 우리 인민군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두고 인민들은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젖는다.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로, 우리 혁명의 가장 믿음직한 기둥으로 강화발전시키시는 길에서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이 생동한 화폭으로 어리어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는 군사를 앞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독특한 사회주의방식이다.》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는 군사를 앞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독특한 혁명령도방식이다.》

혁명투쟁은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통한다는것만큼 강한 혁명투쟁에 의거하여야만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승리한 혁명을 지켜낼수 있다.

주제 90(2001)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우리 당이 펼친 선군령도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령도에서 기본은 인민군대를 강화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강하면 설사 당이 무너진다고 하여도 당의 위업을 끝까지 지켜나갈수 있는것을 믿고, 당도 유지할수 없으며 나라가 망할수도, 어떤 의미에서 군대이자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당과 혁명, 인민앞에 인민군대가 지닌 무조건적 영예로운 사명감을 길이 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우리가 가는 앞길에 그 어떤 천지공파가 닥쳐와도 오직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추앙해나갈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확고한 선군의지가 깎 차립시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사상리론적 업적과 특출한 업적을 두고 자신께서 우리 인민의 토양에서 씨를 뿌리고 키워온 주체사상을 김정일동지가 무성한 숲으로 가꾸어 풍만한 열매를 거둘수 있게 하였고 정철을 맺어주시고 하시어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는 오늘날 만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자신의 혁명사상을 사상, 리론, 방법의 3대구성체로 정립한것으로 만민이 매 구성체를 분리적으로 전개한것도 만민이 알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역사에 길이 빛날 기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시대의 칭송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명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어 나감수 있게 하신것은 우리 당의 위업

실현에서 실로 크나큰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강령으로 내세우시고 불변불휴의 령도와 헌신으로 수령님의 념대로 이 땅에 부강번영의 새 역사를 펼치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당과 군대, 인민의 혼연일체를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함으로써 그 어떤 천지공파속에서도 우리 시의 수령의 위업을 떠메고나갈 필승불패의 혁명력량을 꾸려놓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업적이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밑에 강력한 총대에 의거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존권을 수호하고 주체의 내 나라, 사회주의 내 조국을 불멸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이신 업적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수 없다.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다!

선군은 우리의 생명이고 자주이며 존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엄혹한 시련이 닥쳐들었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더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아래로 우리 당의 위업을 승려로 돌린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것은 선군의 기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위업으로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시며 우리 당과 혁명, 주체의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백승을 펼치신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실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으신 업적 그토록 크나큰것이기때문에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이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국가

의 최고수위에 하루빨리 모시고 새로운 역사적전진길을 다그치려는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고 한결같은 의지였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는 오로지 우리 당을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데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었다.

우리는 추대사업을 놓고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완성해갈것인가 하데 대하여서만 머리를 써야 한다고, 우리는 오직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혁명의 한길로만 변함없이 걸어 나가야 하며 수령님의 위업을 수행해나갈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수령명생위업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한몸바치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은 태양의 존엄과 더불어 영원히 빛나는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성스러운 역사를 새겨가게 되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의 붉은기울 더 높이 추켜들고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처럼 비범한 령도에서 천만군민은 모든 승리의 영광을 보았고 당의 령도적 지휘를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가의 배를 탄다.

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김정일동지의 권위는 곧 우리 당의 권위이며 우리 나라의 권위라고, 김정일동지의 권위가 높아지면 우리 당의 권위가 높아지고 우리 나라의 권위가 높아지게 된다고... 진정한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하고 걸출한 수령의 령도가 있어야 하고 조국, 인민의 운명이 걸려있고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어 나감수 있게 하신것은 우리 당의 위업

전환을 이룩할수 있으며 민족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수 있다는것을 다스림 심정에 새기었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또 한분의 걸출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혁명의 붉은기울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어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는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역사적인 회의가 되도록 이끄시었다.

대표자회가 끝난 후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우리 당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장군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직함으로서 오직 장군님께서는 결부하여 부름수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는 영원히 우리 장군님이시라고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장관 70회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력사적인 로와 《위대한 김정일,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엄숙히 선언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 밑에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어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온 영광스러운 김정일, 김정일동지 당이다!

탁월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영생하시어 오늘도 우리 당의 위업,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기둥으로 믿고 추앙해나갈 위대한 장군님이시라고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 그 어떤 천지공파가 닥쳐와도 오직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추앙해나갈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확고한 선군의지가 깎 차립시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나가기엔 잊을수 없는 나날들에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감과 임무를 다해나가기로 결심결을 이끌어주시었다.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대를 기둥으로,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가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 독립적인 사회주의방식이다.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역선기둥으로 키워주시며 끊임없는 전진하는 사명감을 길에 이어나가시던 우리 장군님의 모습이 숭엄히 어려온다.

찾으시는 초소들마다에서 우리 병사들을 나의 아들딸, 한결근에서 싸우는 선군혁명투쟁이라고 불러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어떤 자랑을 지어낼수 있다.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무척의 총대로 보위해가는 백두산혁명군대가 자랑이다.

어제 이뿐이라, 인민군인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투쟁의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받들어나가는 가장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 달려나가 전적의 돌과피를 열어제끼며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펼치시었다.

우리 당의 위업을 끝까지 담보하는 혁명의 지지점이 되려는것은 백두산혁명군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당을 떠남없는 가장 믿음직한 자라나 우리 인민군대의 참모습이 있으며 선군을 보임으로 역세게 푸어낸 우리 조국이 백승을 펼치는 근본비결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길에하는 원수님께서게서 우리 인민군대를 영원히 당의 위업을 앞장서서 받들어나가는 가장 믿음직한 기둥으로 그 존엄과 위업을 떨쳐잡았다.

본사기자 림정호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18돐을 맞이한 환희의 이 시각 우리 인민군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두고 인민들은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젖는다.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로, 우리 혁명의 가장 믿음직한 기둥으로 강화발전시키시는 길에서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이 생동한 화폭으로 어리어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는 군사를 앞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독특한 사회주의방식이다.》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는 군사를 앞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독특한 혁명령도방식이다.》

혁명투쟁은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통한다는것만큼 강한 혁명투쟁에 의거하여야만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승리한 혁명을 지켜낼수 있다.

주제 90(2001)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우리 당이 펼친 선군령도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령도에서 기본은 인민군대를 강화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강하면 설사 당이 무너진다고 하여도 당의 위업을 끝까지 지켜나갈수 있는것을 믿고, 당도 유지할수 없으며 나라가 망할수도, 어떤 의미에서 군대이자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당과 혁명, 인민앞에 인민군대가 지닌 무조건적 영예로운 사명감을 길이 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우리가 가는 앞길에 그 어떤 천지공파가 닥쳐와도 오직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추앙해나갈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확고한 선군의지가 깎 차립시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사상리론적 업적과 특출한 업적을 두고 자신께서 우리 인민의 토양에서 씨를 뿌리고 키워온 주체사상을 김정일동지가 무성한 숲으로 가꾸어 풍만한 열매를 거둘수 있게 하였고 정철을 맺어주시고 하시어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는 오늘날 만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자신의 혁명사상을 사상, 리론, 방법의 3대구성체로 정립한것으로 만민이 매 구성체를 분리적으로 전개한것도 만민이 알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역사에 길이 빛날 기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시대의 칭송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명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어 나감수 있게 하신것은 우리 당의 위업

실현에서 실로 크나큰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강령으로 내세우시고 불변불휴의 령도와 헌신으로 수령님의 념대로 이 땅에 부강번영의 새 역사를 펼치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당과 군대, 인민의 혼연일체를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함으로써 그 어떤 천지공파속에서도 우리 시의 수령의 위업을 떠메고나갈 필승불패의 혁명력량을 꾸려놓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업적이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밑에 강력한 총대에 의거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존권을 수호하고 주체의 내 나라, 사회주의 내 조국을 불멸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이신 업적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수 없다.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다!

선군은 우리의 생명이고 자주이며 존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엄혹한 시련이 닥쳐들었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더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아래로 우리 당의 위업을 승려로 돌린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것은 선군의 기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위업으로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시며 우리 당과 혁명, 주체의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백승을 펼치신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실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으신 업적 그토록 크나큰것이기때문에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이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국가

의 최고수위에 하루빨리 모시고 새로운 역사적전진길을 다그치려는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고 한결같은 의지였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는 오로지 우리 당을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데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었다.

우리는 추대사업을 놓고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완성해갈것인가 하데 대하여서만 머리를 써야 한다고, 우리는 오직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혁명의 한길로만 변함없이 걸어 나가야 하며 수령님의 위업을 수행해나갈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수령명생위업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한몸바치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은 태양의 존엄과 더불어 영원히 빛나는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성스러운 역사를 새겨가게 되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의 붉은기울 더 높이 추켜들고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처럼 비범한 령도에서 천만군민은 모든 승리의 영광을 보았고 당의 령도적 지휘를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가의 배를 탄다.

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김정일동지의 권위는 곧 우리 당의 권위이며 우리 나라의 권위라고, 김정일동지의 권위가 높아지면 우리 당의 권위가 높아지고 우리 나라의 권위가 높아지게 된다고... 진정한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하고 걸출한 수령의 령도가 있어야 하고 조국, 인민의 운명이 걸려있고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어 나감수 있게 하신것은 우리 당의 위업

전환을 이룩할수 있으며 민족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수 있다는것을 다스림 심정에 새기었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또 한분의 걸출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혁명의 붉은기울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



#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 녀맹원들의 대합창공연 진행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녀맹원들의 대합창공연 《위대한 우리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은 가리라》가 7일 당창건기념탑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뜻깊은 10월의 명절을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에 대한 찬가가 울려 퍼지게 될 공연장에는 녀성들을 혁명의 한복수메바귀를 펴고 나가는 힘있는 역량으로, 가정과 사회의 꽃, 나라의 꽃으로 내세워주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신뢰의 정으로 끓어 넘쳐 있었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정은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녀맹일꾼들, 녀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당을 노래하노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독창과 합창 《김일성대원수님 고맙습니다》, 3중창과 합창 《신군을 노래할 때》, 설화와 합창 《백년백승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 만세》 등의 종목들이 펼쳐졌다.

출연자들은 주체의 혁명적당건설 위업을 개척하고 현명하게 이끄시어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선군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당에 대한 흥미의 마음과 격정 속에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이단위원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우리 당을 인민의 운명을 끝

까지 책임지고 따듯이 보살펴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뜨거운 그리움이 넘쳐 있었다.

중앙과 합창 《신군시대 녀성찬가》에서 출연자들은 절세위인들의 은혜로 온몸에서 당당한 녀성혁명가들로 보람찬 삶을 누리는 우리 녀성들의 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이 당우에 통성변영의 로동당시대가 펼쳐져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활짝 꽃피어나는 내 조국의 자랑스런 현실을 형상한 가요합창과 합창 《열병아리 사파바다》, 독창과 합창 《희망찬 나의 조국아》, 《세상에 부럽지 않아요》 등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 주었다.

노래편곡 《영원한 메아리》,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함일선열들이 지녔던 필승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훈장을

다해 받들어갈 의지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하였다.

시와 합창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우리는 명세한다》, 《영원히 한길은 가리라》로 끝난 대합창공연은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위대한 당이 가리키는 오직 한길로 뜻깊이 걸어가는 온 나라 녀성들의 불타는 맹세를 감명깊이 보여준 것이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조선우표전시회 개막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조선우표전시회 《승리와 영광의 70년》이 7일에 개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우표를 반영한 사진문헌이 전시회장에 모셔져 있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과 우리 당이 지난 70년간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제시한 리선과 정책들, 그 관철을 위한 투쟁과정과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과학, 체육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자랑스런 성과를 보여주는 우표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평양시내의 우표수집가들이 출품한 다양한 우표들도 전시되어 있다.

개막식이 7일 조선우표전시장에서 진행되었다.

김광철제신상, 관계부문 일꾼들, 창작가, 우표수집가,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 문화

가르침을 주시었으며 몸소 이곳을 향하여 항의 규모와 능력도 정해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선군혁명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단천항건설투쟁을 무르익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머니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단천항에서 배고픔소리를 높이 울리게 할데 대한 간곡한 유언을 남기시며 역사에 길이 전할 애국업적을 쌓으셨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단천항건설 돌격대원들과 일꾼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 주시며 절세위인들의 녀맹대로 단천항을 훌륭히 완공하도록 정면적으로 이끌어 주시었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항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자욱이 어려웠는 영광의 일터를 더 잘 꾸리고 관리운영을 개선강화하여 절세위인들의 명도업적을 옹호고수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 《같이 빛나라 단천항에 깃든 불멸의 업적이어》가 단천항에 건립되었다.

단천항에는 나라의 향나무상운수 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었다.

항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 주신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내용을 현안화강에서 한자한자 아라베진 현지지도사적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정중히 건립하였다.

특혜우선과 단천항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특혜우선담당위원의 책임비서 천황식이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불멸의 자욱이 어려웠는 영광의 일터를 더 잘 꾸리고 관리운영을 개선강화하여 절세위인들의 명도업적을 옹호고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우표의 발행역사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조선우표전시회가 당창건 70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경축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마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고무추동하는 데 적극 기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된 우표들을 돌아 보았다.

가르침을 주시었으며 몸소 이곳을 향하여 항의 규모와 능력도 정해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선군혁명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단천항건설투쟁을 무르익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머니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단천항에서 배고픔소리를 높이 울리게 할데 대한 간곡한 유언을 남기시며 역사에 길이 전할 애국업적을 쌓으셨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단천항건설 돌격대원들과 일꾼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 주시며 절세위인들의 녀맹대로 단천항을 훌륭히 완공하도록 정면적으로 이끌어 주시었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항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자욱이 어려웠는 영광의 일터를 더 잘 꾸리고 관리운영을 개선강화하여 절세위인들의 명도업적을 옹호고수

##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 《같이 빛나라 단천항에 깃든 불멸의 업적이어》가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 건립되었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의 영화예술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정면적으로 이끌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력력히 여겨졌다.

합영소의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 촬영원들은 주체적영화예술발전에서 쌓아올린 천출위인들의 명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일 총정의 일념으로 현안화강식을 정히 다듬어 현지지도사적비를 건립하였다.

준공식이 7일에 진행되었다.

관계부문과 촬영소일꾼들, 창작가, 예술인,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쉬임없이 촬영소와 함께 찾아다니며 촬영원들의 영화창작지도와 창조적열정을 세세히 주시고 영화혁명의 불길을 지켜주시어 주체적영화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하여 주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여러차례 촬영소를 찾으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잘 받들어 나가도록 창작가, 예술인들을 따듯이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의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영화부 성원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해를 철저히 관철하며 새 세기 영화혁명의 원바람을 일으켜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영화작품마다에 당의 목소리를 담고 당의 사상과 의지가 백백

지게 하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 문 형식과 내용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대중의 심장을 뒤흔들리는 명작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이 준 과업을 열매밭을 퍼서라도 최상의 수준에서 해내고야마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합심하고 진취적인 창조열정, 집단주의적정열을 일으켜 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바탕을 웃으며 굳게 뚫어 명작목표로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실히 받들어 나가는 혁명적애국열정으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현지지도사적비에 대한 해설을 듣고 비를 돌아보았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 《같이 빛나라 단천항에 깃든 불멸의 업적이어》가 단천항에 건립되었다.

단천항에는 나라의 향나무상운수 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었다.

항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 주신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내용을 현안화강에서 한자한자 아라베진 현지지도사적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정중히 건립하였다.

특혜우선과 단천항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특혜우선담당위원의 책임비서 천황식이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불멸의 자욱이 어려웠는 영광의 일터를 더 잘 꾸리고 관리운영을 개선강화하여 절세위인들의 명도업적을 옹호고수

##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 《같이 빛나라 단천항에 깃든 불멸의 업적이어》가 단천항에 건립되었다.

단천항에는 나라의 향나무상운수 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었다.

항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 주신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내용을 현안화강에서 한자한자 아라베진 현지지도사적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정중히 건립하였다.

특혜우선과 단천항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특혜우선담당위원의 책임비서 천황식이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불멸의 자욱이 어려웠는 영광의 일터를 더 잘 꾸리고 관리운영을 개선강화하여 절세위인들의 명도업적을 옹호고수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 《같이 빛나라 단천항에 깃든 불멸의 업적이어》가 단천항에 건립되었다.

단천항에는 나라의 향나무상운수 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었다.

항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 주신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내용을 현안화강에서 한자한자 아라베진 현지지도사적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정중히 건립하였다.

특혜우선과 단천항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특혜우선담당위원의 책임비서 천황식이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불멸의 자욱이 어려웠는 영광의 일터를 더 잘 꾸리고 관리운영을 개선강화하여 절세위인들의 명도업적을 옹호고수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 《같이 빛나라 단천항에 깃든 불멸의 업적이어》가 단천항에 건립되었다.

단천항에는 나라의 향나무상운수 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었다.

항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 주신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내용을 현안화강에서 한자한자 아라베진 현지지도사적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정중히 건립하였다.

특혜우선과 단천항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특혜우선담당위원의 책임비서 천황식이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불멸의 자욱이 어려웠는 영광의 일터를 더 잘 꾸리고 관리운영을 개선강화하여 절세위인들의 명도업적을 옹호고수

##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매일본조선인축하단 만경대 방문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매일본조선인축하단이 7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축하단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할아버님인 김보현 선생님과 할아버님인 리보익녀사의

모, 어머니이신 김형직선생님과 어머니이신 강반석녀사의 묘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면서 시작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훈을 충직하게 받들어 총련의 애국위업을 힘차게 진전시켜 나갈것이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를 찾으니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렬해진다.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조국을 찾아주시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 주신 김일성대원수님은 절세의 위인, 민족의 태양이시다.

이께서는 총련일꾼들과 매일본조선인들 속에서 영생하신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훈을 충직하게 받들어 총련의 애국위업을 힘차게 진전시켜 나갈것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이스타말 아흐마드 무함마드 나와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7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의 주영직 총중앙위원의 위원장, 박근광, 신홍철 등 관계부문 일꾼들이 초대되었다. 팔레스티나대사관 성원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이스타말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산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것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명도법에 주체의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위한 영광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갔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와 조선 두 나라 인민사이에서 존재하는 역사적인 친선관계가 조선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각하의 관심과 보살핌속에서 더욱 강화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마라 조선로동당이 강성국가건설과 조국의 평화적통일의 숭고한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나가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김기남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최근한 팔레스티나의 빛들이 해마다 우리 인민과 함께 당창건일을 뜻깊게 경축하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흥미와 포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선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 흥남항에서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가 7일 흥남항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합동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셔져 있었다.

김보자국적선박 《연호》호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주체의 나라 조선에서 당창건 70돐을 경축하는 집회를 가지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존엄과 더불어 오늘 세계에서 가장 존엄하고 권위있는 당으로 빛을 뿌리고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조선로동당이 수령의 당으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 흥남항에서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가 7일 흥남항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합동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셔져 있었다.

김보자국적선박 《연호》호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주체의 나라 조선에서 당창건 70돐을 경축하는 집회를 가지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존엄과 더불어 오늘 세계에서 가장 존엄하고 권위있는 당으로 빛을 뿌리고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조선로동당이 수령의 당으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 흥남항에서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가 7일 흥남항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합동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셔져 있었다.

김보자국적선박 《연호》호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주체의 나라 조선에서 당창건 70돐을 경축하는 집회를 가지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존엄과 더불어 오늘 세계에서 가장 존엄하고 권위있는 당으로 빛을 뿌리고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조선로동당이 수령의 당으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 흥남항에서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가 7일 흥남항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합동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셔져 있었다.

김보자국적선박 《연호》호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주체의 나라 조선에서 당창건 70돐을 경축하는 집회를 가지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존엄과 더불어 오늘 세계에서 가장 존엄하고 권위있는 당으로 빛을 뿌리고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조선로동당이 수령의 당으로

## 에리트레아 대사관 무관 군대절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군대절에 즈음하여 무흐타르 마흐무드 카말 무스타파 주조 에리트레아합중국대사관 무관이 6일 대동강의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 관계부문 일꾼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

기구대표들,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되었다.

이만 무스타파 아흐마드 에리트레아합중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아브돌 파라흐 알 쎌데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에리트레아 두 나라 군대들사이의 친선 관계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 주조 무관단 당창건기념탑 참관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7일 당창건기념탑을 참관하였다.

순번들은 주체의 혁명적당건설 위업에 쌓아올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법에 승리와 영광만을 떨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위력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특색있게 건립된 탑을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구바공화국대

사관 무관단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르메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창건기념탑은 조선로동당의 력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함일혁명투쟁시기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셨다. 조선로동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의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기념탑건설을 혁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감동

을 금할수 없다.

당창건기념탑은 건축예술적으로 완벽함 략이다. 탑에 형성된 마지와 낮과 밝은 조선로동당의 구성성분을 상징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업을 계승 완성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명도법에 조선로동당은 승리만을 떨쳐가고 있다.

또한 이날 무관단은 평양문화 전시관을 참관하였다.

조선빨스까친선협회와 빨스까조선협회사이의 협조에 관한 합의문 조인

조선빨스까친선협회와 빨스까조선협회사이의 협조에 관한 합의문이 7일 평양에서 조인되었다.

여기에는 우리측에서 류경일 조선빨스까친선협회 부위원장과 협회성원인, 상대측에서 야

## 제22차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제22차 아시아 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7일 귀국하였다.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타이에서 진행된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인디아, 이란, 중국을 비롯한 35개 나라와 지역

의 우수한 남녀 선수 270여명이 참가하였다.

김혜성, 리미경 선수들은 녀자 복식결승경기에서 일본선수들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혼성복식경기에서 최일, 리미경 선수들이 3위를 하였다.

평양에서 김영춘체육사, 관계부문 일꾼들, 체육인들이 조선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온 선수, 감독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로씨야 내무성 내무군 아카데미 야협주단 도착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단장 최도 로씨야에 도착하는 로씨야내무성 내무군 아카데미 야협주단이 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꾼들과 주조 로씨야야협주단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무관이 맞이하였다.

로씨야 내무성 내무군 아카데미 야협주단 도착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단장 최도 로씨야에 도착하는 로씨야내무성 내무군 아카데미 야협주단이 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꾼들과 주조 로씨야야협주단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무관이 맞이하였다.

로씨야 내무성 내무군 아카데미 야협주단 도착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단장 최도 로씨야에 도착하는 로씨야내무성 내무군 아카데미 야협주단이 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꾼들과 주조 로씨야야협주단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무관이 맞이하였다.

로씨야 내무성 내무군 아카데미 야협주단 도착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단장 최도 로씨야에 도착하는 로씨야내무성 내무군 아카데미 야협주단이 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꾼들과 주조 로씨야야협주단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무관이 맞이하였다.

로씨야 내무성 내무군 아카데미 야협주단 도착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단장 최도 로씨야에 도착하는 로씨야내무성 내무군 아카데미 야협주단이 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꾼들과 주조 로씨야야협주단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무관이 맞이하였다.



김혜성, 리미경 선수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 자주, 선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진두에서 이끄신 불멸의 업적

##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앞길을 한히 밝혀준 위대한 령도

70년전 10월과 함께 시작된 우리 당의 성스러운 투쟁사에는 혁명적당건설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진전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여져 있다. 특히 지난 세기 80년대 후반기와 90년대 초 혁명적당들이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로 변방없이 나아가도록 온갖 심혈을 기울여신 우리 수령님의 헌신의 자욱자욱은 세계사회주의운동사에 천원하 아로새겨져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나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기본원칙입니다. 자주성을 지키야 혁명과 건설에서 과오를 범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수 있으며 투쟁을 승리에도 이끌수 있습니다.》

당시 인류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력사의 갈림길에서 사회주의의 운명에 대한 우려와 불안, 좌절감으로 도태되고있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는 혁명의 배신자들에 의해 일시 가슴어는 목걸이를 겪고있었지만 그 과파성, 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안겨주는것은 비물질이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인류는 세계정치의 원로로, 사회주의의 위업의 수자로 만민의 정수를 받고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을 쳐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로 이끌어주시것을 절절히 염원하시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을 적극 고무추동하시오 새로운 승리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력사를 전진하는 과정에 일시적인 좌절과 우여곡절이 있을수 있으나 인류가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어긋수 없는 법칙이라는데, 전진도 상에 부딪힌 난관에 굴복하여 원칙을 버리고 력사의 궤도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실패와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며 전리와 원칙을 고수하고 력사의 흐름을 따라 나아가는 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사회주의략류가 영수처럼 흘러넘친 세계 곳곳에서 간헐한 넘니와 기대를 안고 찾아오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나시어 고귀한 가르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면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주제 80(1991)년 7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멀리 유럽에서 온 어느 한 나라 공산당대표단을 만나주시고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유럽나라들이 망한것은 결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하지 못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그 후 시점에서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론증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여 적들에게 반격하게 해야 한다고, 비결한자는 갈라면 가라고 하고 우리들은 붙은기를 풀까지 지켜내자고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수많은 공산당, 로동당들이 자주성을 결지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주제 81(1992)년 6월말 스페리에 공산주의자로 동당 위원장을 겸직하시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운동의 역사적교훈에 비추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결지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배가 나라 당들이 자주성의 가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

의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면이 무너지게 된 근본원인과 시대의 요구를 가장 명백히 밝혀주는 가르침이였다.

실지 사회주의를 하던 동유럽나라들이 사회주의를 말아먹은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을 결지할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는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러한 사실은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을 결지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른 나라의 인사들을 만나실 때마다 자주성을 결지할때 대한 문제를 그토록 강조하곤 하시였다.

주제 83(1994)년 6월 30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벨지그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시였을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에게 자주성을 확고히 결지하는것이 지점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당시 국제정세는 매우 유흘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때를 만난듯이 진보적 력량에 대한 반동적공세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었다.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고 인류가 번창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 자본의 길로 나아가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것은 오직 조선의 김일성동지밖에 없다고 생각한 벨지그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만사를 제쳐두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를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은 미국사람들이 《세계혁명》도 뜻을 하고있는것을 보고도 감히 욕을 하지 못하고있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 미국사람들한테 업수인을 당하면서도 참기만 하고있으며 겁이 나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자주성을 결지하고 제국주의나라들과 단호히 맞서싸우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벨지그로동당과 우리 당은 다같이 작은 나라의 당들이지만 자주성을 지키고있다고 하시면서 작은 나라들이 일수록 더 굳게 단결하여 온 나라들이 대국주의를 부리면서 오만무례하게 행동하는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혁명하는 나라 당들이 자주성을 생명으로 삼고 사회주의위업을 변방없이 이어나가도록 결속결속을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따사로온 손길아래 세계사회주의운동은 시련과 난관을 막히지 않고 새로운 투쟁의 길로 즐겁차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는 자주로 전진하고 승리해온 조선로동당의 70년력사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혁명적당의 귀감을 보고있다.

하기에 그들은 오늘도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반제자주위업의 탁월한 수령으로 열렬히 칭송하고있으며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가고있는 조선로동당의 명도에서 반제자주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신하고있다.

정령 영광찬란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력사와 더불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의 투쟁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리 철 희

## 자주는 혁명적당활동의 근본원칙

◇ 여러 나라 정당, 사회단체들에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성대히 맞이하고있다.

경축집회, 토론회, 영화감상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경축행사가 진행되고 신문, 방송들이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70년력사를 광범히 소개하고있다.

수많은 정계, 사회계 인사들이 당화들을 발표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적 명도성에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영령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있는데 대하여 격찬하고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조선로동당의 70년력사는 온갖 시련속에서도 조선식사회주의건설과 인민주주위업을 빛나는 승리로 향하도록 하여온 영웅스러운 력사이라고 칭송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조선당과 정부와 인민은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확언하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로동당이 존엄하고 권위있는 당으로 세계정치무대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음을 잘 보여준다.

◇ 조선로동당의 70년력사는 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주로 승리와 영광을 떨쳐온 궁지 높은 력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자주적지향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우리 당은 창당 첫날부터 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를 영예롭게 고수하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리익을 침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복잡한 국제관계속에서 혁명적당들이 자주의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들어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보장할수 있다.》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미국의 《일국화》책등에 의해 가는 곳마다서 부정부패가 득세하고 《세계화》라미 일고있는 조건에서 인민대중의 힘을 높이고 자기 실정에 맞게 자기 식대로 투쟁해나가야 한다.

혁명적당들이 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 갈 때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의 당과 사회주의를 무너뜨릴 때에도 우리 당은 자주의 원칙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켜냈다.

주제사상이 밝혀준 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온 우리 당의 혁명명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존엄높은 불멸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자주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정세가 변해도 추호도 변할수 없는 우리 당의 혁명적원칙이다. 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우리 당은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을 떨칠것이다.

◇ 오늘날의 시대는 혁명적당들이 자주의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있다.

자주는 혁명하는 당의 생명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당에 있어서 자주성을 결지하는것은 당이 항도적력량으로서의 자기 생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당시 자주성을 잃고 시대와 공중에 풀려가 버린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질수 없는 물론 자기의 존재마저도 유지할수 없게 된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당면하게 된다것은 지난번 력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더욱 로골화되고 지배주의색채가 다른 나라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복잡한 국제관계속에서 혁명적당들이 자주의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들어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보장할수 있다.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미국의 《일국화》책등에 의해 가는 곳마다서 부정부패가 득세하고 《세계화》라미 일고있는 조건에서 인민대중의 힘을 높이고 자기 실정에 맞게 자기 식대로 투쟁해나가야 한다.

혁명적당들이 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 갈 때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 불패의 당으로 위용 떨치는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즈음하여 나이지리아, 페루단체가 9월 22일과 25일 인터넷트롬페지에 글을 올렸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는 《불패의 당으로 위용 떨치는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국제사회에서 불패의 당으로 존엄떨치고 있다.

1945년 10월 10일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70년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조선로동당의 불패성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당의 지도사상에 있다.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조선로동당의 이 지도사상은 조선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동방에서 처음으로 인민주주의 국가를 탄생하게 하였으며 조선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떠들던 미국을 타승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게 하였다.

비결은 둘째로, 전당의 통일 단계에 있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하신 김정일각하의 명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불패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수령을 중심으로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당으로 다져나가시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당들도 많지만 조선로동당과 같이 수령을 중심으로 당의 조직사상

적기초가 공고히 다져지고 당안에 사상의 일색화가 실현된 당은 없다.

비결은 셋째로,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전당이 균중속에 들어가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주주의정신이 반영되고있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의 불패성에서 특히 강조하여야 할것은 위대한 수령들을 모신것이다.

김 일 성 주 석 계 서 와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김정은명도자리를 높이 모시고 불패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고 있다. 그이께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최상의 경지에서 계승 완성해나가신다.

김정은명도자리는 야마로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불패성의 상징이다.

배우조선원전문화회회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어머나당의 위대한 명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현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실었다.

【조선중앙통신】

##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조선로동당의 70년력사

오늘 조선로동당은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당으로, 혁명적인 당으로 그 이름 높이 떨치고있다.

스르비아의 새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총비서는 인터넷트롬페지에 올린 《조선로동당의 70년 력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로동당이 지난 70년간 세인을 경탄시하는 빛나는 성과들을 이룩하고 근대사의 시련을 이겨내며 조선의 근대사와 인민을 승리로 향도하여올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명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또 한분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정은동지의 혁명적명도에 의해 조국통일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실현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즈음하여 로씨야신문, 잡지자 등

영국의 혁명가들의 의미이다. 조선인민에게 변함없는 편대성을 표시한다. 조선인민과의 면대성 운동에 참가하고있는 영국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이 토론회에 적극 참가할것을 호소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벨기에가 조선원전문화회는 불패적인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축하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여 발행하였다. 벨기에는 지난 70년간 혁명승리와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조직자, 항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온 우리 당의 투쟁 활동을 상세히 전하였다.

남아프리카진보적사상연구소 조 위원장, 기르키스탄 《레프》 조 위원장, 인도인민공화국정당 중앙 리사회 위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사들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페루조선원전문화회 등

러 조직들과 신문, 통신, 방송들이 강성국가건설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고있는 우리 당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킨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세계가 한결같이 격찬하는바와 같이 오늘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만을 이룩하고 있는것은 당의 혁명적명도를 받은 기 때문이다. 그렇다. 오늘 우리 당이 필승불패의 강령적인 당으로 조직자, 항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온 우리 당의 투쟁 활동을 상세히 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위업을 그대로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적명도에 의해 우리 당,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백전백승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우리의 일관된 립장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조선반도에 지속되고있는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보장체제를 세우려는 남한으로 부터 유엔총회 제70차회의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시급히 교체해 달라는 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천명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0년이 넘었지만 조선반도에서는 아직도 공고한 평화가 이룩되지 못

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반도와 주변에서 각종 명목의 크고작은 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놓고 있는것으로 하여 우발적인 사건에서도 예측할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있다.

인민들을 자그마한 사건으로 정세가 일순간에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지난 8월사태의 교훈은 명백한 지난날의 현재의 정전협정으로서는 조선반도에서 더는 평화를 유지할수 없다는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가 지속

되는 한 긴장격화의 악순환과정은 되풀이되고 정세가 전경정경으로 치달단 되는것은 불가피하다.

또다시 조선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으며 그렇게 되는 경우 쉽게 세계대전으로 번져지게 될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방도는 조미가 하루빨리 남을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선반도에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는것이다.

우리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제안과 발기를 계속하고 꾸준히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미국은 정전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과 결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지체없이 채택되기를 바란다.

현실적으로 남조선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위고있는것도 미국이 정전협정을 판라하고있는것도 미국이다.

미국이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도 건설적인 대화

에 용할 용의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 조선반도의 안전환경은 극적인 개선을 맞이하게 될것이고 미국의 안보상 우려점들도 해소되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미 공식경로를 통하여 미국측에 평화협정체결에 전적으로 용해나올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우리는 미국이 평화협정체결과 관련한 우리의 제안을 집중히 연구하고 긍정적으로 용해나오기를 기대한다.

주제104(2015)년 10월 7일 평 양

##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캄보자 쾨넨베크당 위원장을 의례방문

통기철 캄보자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9월 29일 노로물 라나리드 캄보자 쾨넨베크당 위원장을 의례방문하였다.

선상에서 위원장은 조선로동당 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림것을 대신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캄보자와 조선사이의 관

이에 대해 캄보자인민은 물론 온 세계가 잘 알고있다.

위대한 수령들의 넘니에 맞게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과의 친선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려는것은 우리들의 의무이며 도리이다.

쾨넨베크당은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정책과 로선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물을 이룩할것을 축원한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 도착

과학자회의 부위원장님이 맞이하였 다. 한편 이날 아시아지역 주체사상 연구소 리사장 하리우 굽파와 문학인단체대표단이 도착하였다.

##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에 참가할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최봉호 중국 전 연변과학기술대학 부총장과 일행, 리영호 중국 단둥성민무역유한공사 리사장과 일행, 최영준 부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

국 절강성 승주중교광업유 한공사대표단이 7일 비행기와 철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윤갑상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비동로전국련합회대표단, 김수해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카나다조선인민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도착

최은복리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이 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역에서 김

주국 해외로사사업국 국장, 판계 부원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주국장은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리지숙 재도이월란드동로협회 회장일행이 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과 평양역에서 김진국 해외로사사업국 국장이 맞이하였다.

해 외 연 고 자 가 족 들 도 착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항 일혁명렬사 장용화동지의 가족일행과 중국항일혁명렬사 연구자들인 왕명기, 계정, 강자화, 류통사가족일행들, 재중항일혁명렬사 박길송가족일행, 재중항일혁명렬사 연구자 김순옥가족일행이 7일 평

양역에서 리시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부소장이 맞이하였다.

한편 이날 중국항일혁명렬사 연구자들인 류현홍, 평시로가족일행들, 재중항일혁명렬사 서순옥가족일행이 비행기로 왔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선군정치연구 내발 소 사무국장일행

아시아지역 주체사상 연구소 리사장일행

왕명기 가족일행

계정가족일행

강자화가족일행

류현홍가족일행

평시로가족일행

서순옥가족일행

부총장과 일행

중국 절강성 승주중교 광업유한공사대표단

중국 단둥성민무역유 한공사 리사장과 일행

